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11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18.85원 (+2.75원)

KOSPI

6,299.66 (+40.89, +0.65%)

KOSDAQ

854.47 (+55.66, +6.97%)

국고채 10년 금리

4.239 (+0.031%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수요 패턴과 투자 기준의 변화 [박승진]
New K-ETF	K-전략산업, 금반지 채권혼합 [박승진]
Doo It Now	반등은 시작됐다(Feat. 세 가지 불안과 기회 공존) [김두연]
주간 하나채권	[8월 2주] 고용 쇼크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 [박준우, 허성우]

기업분석

코스메카코리아	역사적 고점을 뚫다 [박종대]
인텔리안테크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기대된다 [한유건]
SK바이오팜	아제투칼너가 엑스코프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김선아]
지역난방공사	만약 연간 감익이 아니라면 [유재선]
한전KPS	선형 지표가 없는 실적 [유재선]
SFA반도체	DDR5 테스트 전량 확보, 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 [권태우]
삼성전기	[NDR 후기] 수급 불안을 먹고 자라는 중 [김민경]

산업분석

통신·장비	스페이스X는 디시네트워크와는 급이 다릅니다 [김홍식]
운송	7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2Q가 저점, 턴어라운드 기대 [안도현]

Weekly

건설 Weekly	확인되고 있는 AIDC와 부동산 정책 [김승준]
-----------	----------------------------

글로벌리서치

지멘스	5년간 AC/DC의 하이브리드 배전 인프라 전망 [김시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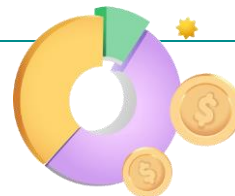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이피알, S-Oil, CJ제일제당, GS건설, 세아베스틸지주
RFHIC, 에이유브랜즈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8.10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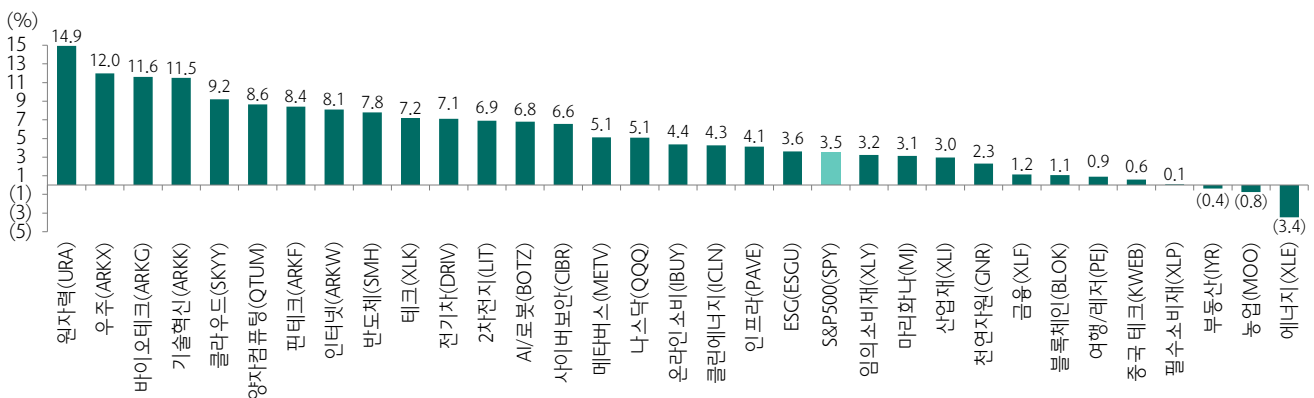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수요 패턴과 투자 기준의 변화

AI 산업 내 수요와 투자의 무게중심 변화 고려. MAGS, IGV/XLK, SMH, PAVE, KBWB, XAR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선진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초가 지속되었다.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과 북미 지역 주식형 ETF 시장으로 각각 +118.0억달러, +155.9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며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총 +318.9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 추세도 유지되기는 했으나, 순유입 규모가 +81.6억달러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으로 +151.1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에 총 +176.0억달러가 유입된 반면,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3주 연속 자금 유출 흐름이 지속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업종 및 테마의 분산 추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 ETF 종목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시장 전반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주식형 ETF 종목군의 경우 NASDAQ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 QQQM에 총 +85.5억달러가,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IWV/SPYM으로 총 +126.2억달러, 다우존스 지수 ETF인 DIA에 +18.7억달러, 미 증시 전반에 투자하는 VTI로 +18.0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이와 함께 XLI(산업재), EWY(한국증시), EFV(선진가치), XLV(헬스케어), XLY(임의소비재) 등의 ETF들이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반면 SPY(S&P500)에서 -51.5억달러가, 반도체 ETF들인 SOXX와 SMH에서 총 -37.8억달러, 배당주 ETF들인 SDY와 SPYD에서 총 -28.1억달러의 투자자금이 순유출되었다.
-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초단기 국채 ETF인 SGOV, 하이일드 회사채 ETF인 HYG, 지방채 ETF인 VTEB와 미국 채권 전반에 투자하는 BND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TLT(장기국채), LQD(IG회사채), BIL/CLIP(초단기국채)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달러 강세 흐름이 약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대표 금 현물 ETF인 GLD/GLDM/IAUM으로 +13.8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금주 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분기 성적이 확인될 예정이다. AI 인프라 및 장비, 우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주중에 실적을 내놓는다. 경제지표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7월 CPI와 PPI가 발표된다.
- 먼저 주초의 Rocket Lab과 AST SpaceMobile의 실적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주부터 SpaceX의 첫번째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에 나서고 있다. 수급 부담에 대한 경계가 주가 조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실제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는 차익 매물이 제한되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가이던스 가운데 급격한 변동성이 조합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급 부담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 이어 화요일 미국 장 마감 후 확인되는 Lumentum과 CoreWeave,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Cisco, Coherent, Cerebras 등의 실적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특히 Lumentum은 AI 데이터센터 광트랜시버 수요 및 중국 수출 규제 이슈 등으로 최근 가파른 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던 만큼, 가이던스 수준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광통신 부품주 전반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목요일(8/13)에는 Applied Materials가 실적을 발표할텐데, 반도체 장비 수요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설비투자 사이클을 다시 한번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전망이다.

- 경제지표의 경우 오는 수요일(8/12)에 7월 CPI가 공개되는데, 전년대비 상승률은 역기저효과의 영향으로 Headline과 Core 모두 6월(H +3.5%, C +2.6%) 대비 소폭 둔화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전월대비 상승률은 Headline이 -0.4%에서 +0.1%, Core가 0.0%에서 +0.2%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유가의 변동성 상황도 조정 요인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8월 지표의 해석 과정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목요일(8/13)에 발표되는 PPI 역시 유사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전년대비 상승률은 낮아지겠으나 전월대비 상승률은 6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앞서 확인된 7월 고용보고서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도 감소하는 모순된 모습이 나타났다. 구직자 감소와 일회성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이다. 주목해야할 내용은 고용시장의 퀄리티가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다. 이민자 정책 영향과 장기 취업 지연 인력들의 증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61.4%까지 하락했고, 임금상승률도 전년대비 +3.2%까지 낮아졌다. 해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용과 재취업 둔화 흐름이 고임금 업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 전반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공급 요인 중심의 인플레이션 압력과는 달리 수요 요인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 투자전략 수립에 있어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수요자들이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요 구조의 변화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금번 실적 시즌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시장 전반의 판단 기준도 현금흐름을 앞세운 수익성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사용 패턴 및 투자 판단의 우선순위 변화는 최근 1년 사이 열위를 보여왔던 AI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조정 후에 진행되는 단기 반등 기대와는 별개로 반도체 섹터(SMH/SOXX/DRAM)의 변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ETF들(IGV/XLK/VGT)과 Hyperscalers 기업들이 포함된 MAGS,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유연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한 CHAT/BAI(AI 액티브) 등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 Hyperscalers 중심의 자금 조달 수요 및 대형 IB 딜 증가 흐름, 순환매 가능성의 염두 하에 KBWB(대형은행)를, 해킹 이슈들과 함께 AI 및 소프트웨어 내 안정적 수익 기반이 부각되는 CIBR(사이버보안), 투자 중심의 경제 사이클과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AIRR(중소형제조업), XLI(산업재), 지정학적 리스크의 반복 과정에서 무기 재생산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 실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PPA와 XAR(미국방산)/KDEF(한국방산) 등에 관심을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변동성이 반복되는 현 국면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VO/QDVO도 적절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 테마명,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8.3~8.7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8월 10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K-전략산업, 금반지 채권혼합

신규 상장 ETF(8/11)

- ACE 반도체 Plus 전략산업, FOCUS 금융반도체지주 채권혼합50 액티브

ACE 반도체 Plus 전략산업: 한국의 5대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선, 방산, 원자력, 휴머노이드 산업까지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표 섹터들과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의 조합이다. 섹터별로 2개 종목을 선별하여 편입하는 10개 기업의 집중형 포트폴리오 ETF가 되겠다.

유동성 조건(시가총액 5천억원 ↑, 거래대금 10억원 ↑)을 충족하는 국내증시 상장 종목들 가운데 4대 주요 산업(반도체/조선/방산/원자력)과 플러스 산업 1개를 선정한다. 플러스 산업은 산업 키워드 점수(50%)와 산업 규모 점수(20%), 산업 정책 점수(30%)를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상장 시점 기준으로는 휴머노이드가 플러스 산업으로 포함(가변적)되었다. 상기 절차를 통해 정해진 5대 산업에 대해 평균 시가총액과 산업별 키워드 점수의 기준을 반영해 각각 상위 2개의 대표 종목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최종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상장일(8/11) 기준의 최종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반도체),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방산),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원전), 현대와 현대모비스(휴머노이드)의 10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은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하며, 25%의 Cap Rate이 최대 상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Cap Rate을 초과할 경우에는 25% 초과 분을 그 외 종목에 안분하여 조정한다. 섹터의 경우 반도체 산업을 최소 40%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산업들은 10%의 최소 비중 기준을 반영한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 옵션만기일의 익주 첫 영업일)에 걸쳐 진행하며, 총 보수는 0.40%이다.

FOCUS 금융반도체지주 채권혼합50 액티브: 국내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 종목들로 구성된 주식 포트폴리오와 한국 국채로 구성된 채권 포트폴리오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채권혼합형 액티브 ETF이다. 주식과 채권을 5대 50 비중으로 편입함으로써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ETF 종목이 되겠다.

비교지수인 'KAP 금융반도체지주채권혼합50지수'는 유동성 조건을 충족하는 반도체/금융/지주 업종 구성 종목 가운데 LLM 기반(반도체: AI반도체, 금융·지주: 밸류업·주주환원)의 스코어링 상위 종목들을 주식 포트폴리오 편입대상(시가총액 스코어 70%, 키워드 스코어 30%)으로 선정한다. 채권 포트폴리오는 3년 국채선물 근월물 바스켓에 편입된 3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주식 포지션의 경우 반도체 업종은 60%, 금융 업종과 지주 업종에는 각각 20%의 섹터 비중을 할당하며, 채권 포지션은 동일가중방식으로 편입한다. 비교지수 가운데 주식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6월/12월), 채권 포트폴리오는 연 4회(3월/6월/9월/12월)에 걸쳐 진행된다. 0.4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ACE 반도체 Plus 전략산업, FOCUS 금융반도체지주 채권혼합50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FOCUS 금융반도체지주채권혼합50액티브
상장일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iSelect 반도체TOP2+전략산업	KAP 금융반도체지주채권혼합50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40%	0.40%
구성종목 수	10종목	- 주식: 30종목 내외 - 국고채: 3종목
비중결정방식	유동시총 가중방식	- 주식(50%): 반도체:금융:지주회사 섹터 비중 = 60:20:20 - 채권(50%): 동일가중방식
정기변경	연 4회 (매 3월, 6월, 9월, 12월의 옵션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	- 주식 : 연 2회(6월, 12월) - 채권 : 연 4회(3, 6, 9, 12월)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8월 11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DIN (Doo It Now)

반등은 시작됐다(Feat. 세 가지 불안과 기회 공존)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 이후 KOSPI는 √자형(루트) 반등을 예상한다. 외국인 수급과 투자심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격은 위기 수준까지 낮아졌고 이익 전망은 오히려 높아졌다. 여기에 미국 금리의 상방 압력도 완화되고 있다. 불안은 끝나지 않았지만, 반등은 시작됐다.

가격이 약한 것이지, 이익이 약한 것은 아니다. KOSPI 는 6 월 고점에서 33.3% 하락했다. 그러나 12 개월 선행 EPS 전망치는 연초 이후 약 184% 높아졌고 12 개월 연속 상향됐다. 7 월 수출도 988.9 억달러로 전년비 62.8%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은 410.1 억달러로 178.8% 늘었다. 2 분기 GDP 역시 전분기비 0.6%, 전년비 3.7% 성장했다.

과거 위기와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 98 년 IMF 외환위기, 08 년 금융위기, 20 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주가와 함께 이익 전망도 훼손됐다.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 EPS 가 올라가고 있다. 8 월 9 일 KOSPI 12 개월 선행 PER 5.12 배는 2008 년 금융위기 당시 6.27 배보다 낮고, 코로나 저점 당시 7.53 배도 하회한다. 특징은 명확하다. 가격은 위기를 반영했지만, 이익은 아직 위기가 아니다.

물론 주도주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7 월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에 집중됐다. 8월 첫 주에도 KOSPI 기준 외국인은 약 7.4 조원을 순매도했다(정규장과 NXT 합산). 반도체에 대한 우려와 포지션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V자가 아니라 √자형 반등을 예상하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다. 미국 7 월 비농업 고용은 2.3 만명 감소해 예상치 +8 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5~6 월 고용도 함께 10.3 만명 하향 수정됐다. 시장은 경기침체보다 먼저 Fed 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CME 금리선물 시장에서 9 월 금리인상 확률이 13%p 하락한 44.4%가 되었다. 7 월 FOMC 이후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내려왔다. 10 년물 국채금리는 4.6%대로 내려왔고 달러도 약세로 반응했다. 고용 둔화가 경기 우려보다 할인을 부담 완화로 먼저 연결되고 있다.

미-일 공동 외환시장 개입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과 일본은 7 월 31 일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나섰다. 지속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엔화 약세와 일본 국채 불안이 미국채 매도로 전염될 수 있다는 괴리위험을 낮췄다는 점이다. 공동 개입이 미국채 금리를 직접 낮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 재무부가 양적완화 효과를 내고 있고, 미국 금리의 추가 상승 위험을 한 단계 낮췄다.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에는 우호적이다. 다만 원화 강세가 곧바로 외국인 순매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율 안정은 필요조건이고, 반도체 이익에 대한 신뢰 회복이



국내외 주식시장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주식시장 RA 최욱 wookchoi@hanafn.com

충분조건이다. 원화가 먼저 움직이고 외국인 수급이 시차를 두고 뒤따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수급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의 KOSPI 거래 비중은 7 월 30 일 32.5%에서 8 월 7 일 3.4%로 급감했다. 기본예탁금 상향과 신규 상장 중단 등 규제도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계적인 변동성은 줄어 들 수 있다. 그러나 손실을 경험한 투자심리는 수급보다 느리게 회복된다.

미국과 이란은 반등의 속도를 결정할 변수다. 협상 타결을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미국 측은 8 월 7 일 오만을 통한 호르무즈 협상의 진전을 확인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와 금리, 증시의 불안이 커질수록 확전의 정치적 비용도 높아진다. 따라서 트럼프의 'TACO'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는 전망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반응함수에 대한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 확인 지표는 8 월 10 일 기준 수출 잠정치다. 7 월 수출이 이미 견조했던 만큼 증가율 자체보다는 반도체 수출의 절대 규모와 일평균 수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수출이 이익 전망을 지지한다면 가격과 펀더멘털 사이의 괴리는 다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반등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장 내부의 수급 왜곡도 정상화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규제가 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 단계는 과도한 단기 회전의 비용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에 한해 매도 시 0.2%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확정 정책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다. 목적 역시 세수 확보가 아니다. 초단기 거래와 기계적 리밸런싱이 현물시장 전체에 전가하는 변동성 비용을 해당 상품 내부로 되돌리는 데 있다.

일반 ETF 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 적용 대상을 변동성 증폭 효과가 큰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으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 이후 효과를 재평가하는 일몰형 제도가 적절하다. 정책이 가격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 기업의 이익이 다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왜곡된 수급을 걷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8 월 시장에는 세 가지 불안과 세 가지 기회가 공존한다. 수급은 약하고, 변동성은 높으며, 투자심리는 나쁘다. 반면 가격은 낮고, 이익은 견고하며, 금리의 방향은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앞의 세 가지는 지난 하락을 설명한다. 뒤의 세 가지는 다음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V 자가 아니라 $\sqrt{\text{자}}$ (루트)다. 첫 반등은 가격과 금리가 만들고, 다음 상승은 이익과 외국인이 만든다.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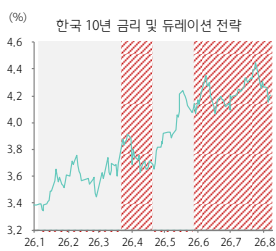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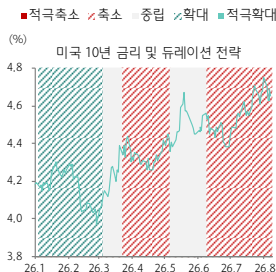
2026년 8월 10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국채 투자 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한국			

주: 8/10 기준. ●는 직전(6/8) 전망



주간 하나채권

[8월 2주] 고용 쇼크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

- ‘유가 상승 + 통화 긴축’ 리스크 완화로 금리 하락하는 등 자산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 7월 미국 고용 쇼크로 9월 인상 리스크 완화. 미국 듀레이션 ‘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 다만 고용 부진에도 (1) 투자 중심으로 성장세 견조하고, (2) 미-이 협상 난항에 따른 유가 반등 리스크 여전. 따라서 금리 방향성 자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보기 어려움

Weekly Viewpoint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와 7월 미국 비농업고용 쇼크에 큰 영향을 받았다. WTI 가격이 \$70대로 하락했고, 미국의 9월 인상 확률은 1주일 전 67%에서 44%로 하락했다. ‘유가 상승 + 통화 긴축’ 리스크 완화는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표 28]. 미국, 한국 10년 금리는 주간 각각 10, 5bp 하락했다.

미국 7월 비농업고용은 2만명 감소해 크게 부진했다. 5, 6월 고용도 총 10만명 이상 하향 조정되면서 3개월 이동평균 고용은 전월 11만명 대비 급감한 2만명을 기록했다. 연준의 Breakeven 추정치에 근접한 수치다 [도표 4]. 지방정부 등 특정 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졌으나, 2분기에 확인된 고용 회복 추세가 꺾이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임금 상승률도 월간 +0.1%를 하회하며 수요 측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도표 7].

고용 부진과 임금 상승률 하락은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하나채권은 올해 9월 인상을 전망했는데, 9월보다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다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9월 인상 가능성을 4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다. 7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는다면 인상 프라이싱이 추가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환경이다.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한다.

그러나 연내 인상 리스크가 소멸했거나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 경제는 기업(투자) 활동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쇼크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생겨난 정도다 [도표 1]. 빅테크들의 Capex 예상 규모가 증가하고 7월 ISM PMI 중 신규 주문지수도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투자 사이클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표 22, 8]. 은행의 대출태도도 이전보다 덜 긴축적으로 변화하면서 대출 증가에 따른 신용 팽창도 이어지고 있다 [도표 9]. 고용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실업률은 4.1%로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으나 실업자 증가도 제한적이다. 금융환경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인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주가 상승,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표 2]. 고용 충격에 비해 금리 하락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도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치도 낮출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이전에 해협 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의 레버리지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란은 오만과의 협상이 즉각적인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병력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제재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조건들을 수용한다면 사실상 패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7월 [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MAGA 지지층 가운데 전쟁에 찬성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77%에 달해,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해협 개방을 둘러싼 막바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10년 BEI 2.2%대), 유가 하락 여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결국 이번 고용 쇼크는 인상의 '시점'을 미룬 것이지 인상 사이클을 되돌린 것이 아니다. 금리 역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가보다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국면으로 판단한다. 미국 국제투자의견은 '중립'으로 상향하되 듀레이션 확대는 권하지 않으며, 한국은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7월 CPI가 예상(근원 0.2% MoM)을 하회하면 9월 인상 프라이어싱은 추가로 약화될 수 있다 [도표 13]. 다만 향후 긴축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하고 금리가 추세 하락하려면, 미국의 투자 사이클이 꺾이거나, 고용 둔화와 함께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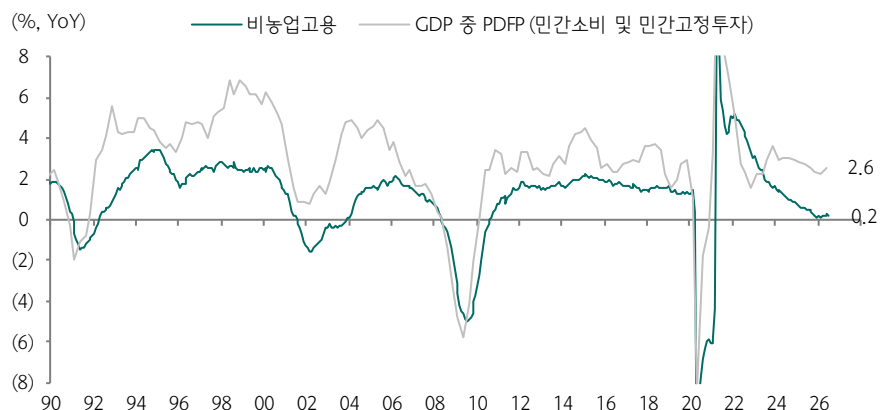
도표 1. 미국 경제 성장률과 고용 증가율

: 성장률은 투자 중심으로 견조. 반면 고용 증가율은 소폭 회복 후 다시 주춤

지난 1~2년 동안 고용 부진에도
성장세는 견조했음

2분기에 고용 회복까지 더해지면
서 인상 리스크 확대됐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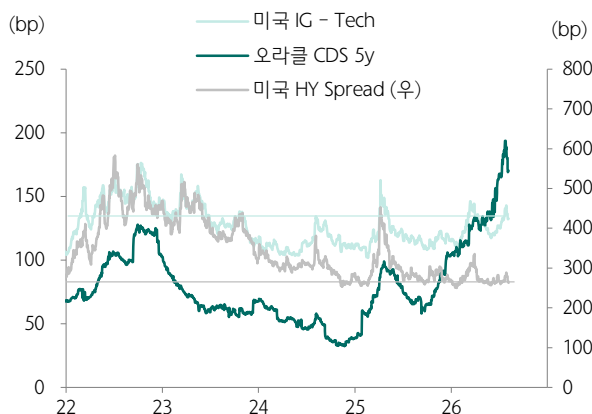
7월 고용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소지



자료: BEA, BLS, 하나증권

도표 2. 미국 크레딧 스프레드

: 긴축 리스크 완화 등에 스프레드 축소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미국과 한국의 인상 프라이어싱

: 1년 이내 미국 1~2회, 한국 약 3~4회 반영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08월 11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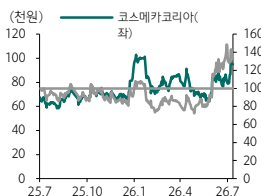
현재주가(8.10) 95,0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54.47
52주 최고/최저(원)	103,000/58,400
시가총액(십억원)	1,014.6
시가총액비중(%)	0.22
발행주식수(천주)	10,68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8.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9
외국인지분율(%)	22.00
주요주주 지분율(%)	
박은희 외 3 인	38.95
국민연금공단	12.8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792	899
영업이익(십억원)	106	124
순이익(십억원)	82	94
EPS(원)	6,455	7,423
BPS(원)	29,630	36,70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99	471	524	641
영업이익	10	49	60	84
세전이익	6	46	68	78
순이익	3	22	43	45
EPS	249	2,090	4,007	4,255
증감율	(70.1)	739.4	91.7	6.2
PER	41.2	17.4	13.8	15.7
PBR	0.7	2.3	2.7	2.8
EV/EBITDA	9.7	8.0	9.4	8.8
ROE	1.8	13.2	19.6	18.0
BPS	13,732	15,874	20,450	23,663
DPS	0	0	100	37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코스메카코리아 (241710)**역사적 고점을 뚫다****2분기 연결 영업이익 321억원(YoY 39%) 달성**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40%, 39% 성장한 2,261억원과 321억원으로 시장 기대치(OP 277억원)를 크게 넘어서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사업 매출이 인디 브랜드 수출 호조로 YoY 63% 고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잉글우드랩 한국 사업이 G사 발주 저하로 감익(87억원, YoY -13%)했으나 예상보다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국내 사업 영업이익률은 13.7%(YoY +1.1p)까지 상승했다. i) 고마진 기초 중심, ii) 브랜드별 핵심 카테고리 매출 확대, iii) 브랜드별 SKU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제고되고 있다.

고객 다변화, 카테고리 확대로 사업 규모 레벨업 성공

주요 높은 대형 고객사 매출 증가가 중소형 신규 브랜드들의 매출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5~10위권 고객사 매출 비중이 과거 1%에서 2~3%로 높아졌다. 더마 카테고리가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으며, 자외선차단제와 하이드로겔 마스크, 아이패치까지, 고객사와 카테고리가 다변화되면서 글로벌 화장품 ODM 대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 하이드로겔마스크는 국내 사업 성장률을 약 5% 제고시켜주고 있으며, 국내 최대 인디브랜드 A사가 톱10 고객사 안으로 신규 진입한 점도 고무적이다.

연간 가이드스 YoY 20% -> 30%로 상향 조정

회사는 2026년 실적 가이드스를 기존 연결 매출 성장률 YoY 20%에서 YoY 30%(OPM 13.5%)로 상향조정했다. 1분기 실적 발표 후 15%→20%로 올린 후 불과 3개월 만이다. 얼마나 한국 화장품 산업이 역동적인 호황기를 보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한국법인의 경우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 규모가 5% 이상 커지게 된다. 이것도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한다. 이번 2분기 실적발표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천억원, 분기 영업이익 3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한국법인의 경우 전년도 2분기 매출 1,100억원을 기록했을 당시, "이제 분기 매출 900억원 이상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회사측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불과 1년 만에 두배 수준으로 올라왔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12배로 여유 있는 수준이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역사상 최대 수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국내 톱 3 ODM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저한 저평가다. 곧 실적과 함께 주가도 역사적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6년 08월 11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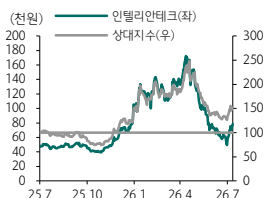
78,6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54.47
52주 최고/최저(원)	172,400/39,400
시가총액(억원)	8,439.7
시가총액비중(%)	0.18
발행주식수(천주)	10,737.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1.6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149.4
외국인지분율(%)	23.28
주요주주 지분율(%)	
성장업 외 5인	22.9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3,963	4,851
영업이익(억원)	389	597
순이익(억원)	431	527
EPS(원)	3,913	4,800
BPS(원)	30,565	35,956

Stock Price**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2,395	3,050	2,578	3,196
영업이익	153	107	(194)	120
세전이익	168	72	(22)	67
순이익	160	55	(30)	75
EPS	1,689	550	(281)	695
증감률	145.9	(67.4)	적전	흑전
PER	39.0	131.8	(133.5)	85.6
PBR	3.4	2.8	1.5	2.2
EV/EBITDA	5.1	2.6	30.8	4.9
ROE	9.0	2.0	(1.1)	2.8
BPS	19,278	25,993	25,642	26,498
DPS	100	100	100	200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인텔리안테크 (189300)**2분기에 이어 3분기도 기대된다****2Q26 Preview: 추정치 초과 달성 가능**

인텔리안테크 2Q26 연결 기준 예상 실적은 매출액 966.9억원(YoY+29.4%, QoQ+49.4%), 영업이익 87.0억원(YoY+393.5%, QoQ+1,366.5%, OPM 9.0%)으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Gateway 안테나 출하는 약 350억원에 이르며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군용 안테나 출하는 26년 들어서 매 분기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질적으로 원웨이형의 민수 부문 안테나까지 포함하면 약 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해상용 VSAT 안테나는 평판형 안테나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신제품 효과와 더불어 하이브리드(정지궤도&저궤도) 안테나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머셋, 마링크향 연간 출하 물량은 상반기에만 이미 25년 물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생산공장, 향후 美 정부 사업 진입 전초 기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우주항공 및 위성통신 공급망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서 핵심 소재, 통신 안테나, 부품 등 생태계 전반은 자국 중심 및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위성 네트워크 안보 측면에서 우주 공간이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급부상하며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 시, 중국산 통신장비, RF모듈, 안테나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 서플라이 체인' 구축이 본격화 되고 있다. 탈중국 공급망 재편과 위성통신 안보 강화 흐름 속에서 인텔리안테크는 반사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26년 7월 북미 서부 지역에 생산 공장 구축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8월부터 실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미 거점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고객사 확보와 공급 제품 라인업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글로벌 Top-Tier 고객사인 Company A社 안정적인 레퍼런스 확보는 향후 미국 국방부 사업에 수주 자격 획득(NDAA compliance, ITAR 조건 충족 기준)도 가능할 수 있다.

2세대 제품 개발 시작

인텔리안테크는 Company A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위성 발사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거의 독점적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직간접적 수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2월 체결된 약 860억원 규모의 수주는 올해 안정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고 있으며, 최근 2세대(40GHz) 제품에 대한 PO와 개발 킥오프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수주 받은 AST스페이스모바일향 계약 중 미인식 물량 약 220억원은 올해 모두 매출로 인식될 전망이다. 러-우 전쟁 이후 위성 통신의 생존성은 이미 입증되었고, 군용 안테나 수요가 급증하며 수익성 개선의 핵심인 방산향 매출 비중은 올해 전체 매출의 약 1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동사의 예상 매출액은 약 3,867.5억원(YoY +21.0%), 영업이익 352.9억원(YoY+195.2%, OPM 9.1%)으로 턴어라운드 기조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2026년 8월 1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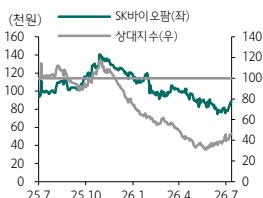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50,000원
현재주가(8.10) 88,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299.66
52주 최고/최저(원)	140,700/74,600
시가총액(십억원)	6,946.4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78,313.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77.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4.5
외국인지분율(%)	12.54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4인	50.10
국민연금공단	6.0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75.5	1,178.1
영업이익(십억원)	351.9	471.4
순이익(십억원)	319.3	407.0
EPS(원)	4,244	5,413
BPS(원)	14,691	20,231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47.6	706.7	972.7	1,240.0
영업이익	96.3	203.9	340.1	469.8
세전이익	72.6	150.9	357.1	496.8
순이익	240.7	267.0	321.2	401.8
EPS	3,074	3,409	4,101	5,130
증감율	흑전	10.90	20.30	25.09
PER	36.14	36.55	21.63	17.29
PBR	15.93	12.00	6.05	4.48
EV/EBITDA	75.53	43.07	18.17	12.61
ROE	58.01	39.28	32.75	29.78
BPS	6,975	10,382	14,660	19,790
DPS	0	0	0	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SK바이오팜 (326030)**아제투칼너가 엑스코프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엑스코프리 연간 가이드런스 상단(\$580M) 터치는 확실해지는 분위기**

2Q26 실적은 매출 2,474억원(YoY+40.3%, QoQ+8.6%), 영업이익 971억원(YoY+56.9%, QoQ+8.1%, OPM39.2%)으로 전망된다. 판관비가 전분기 대비 115억원 증가하였는데, 마케팅 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다. 4월부터 기존 DTC 광고를 재개하였고, 6월 말에도 신규 DTC 광고를 출시하여 하반기 의료진 및 환자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4Q에 처방량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는 트렌드까지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여도 Xcopri의 연간 추정 매출액은 \$585M로써 가이드런스 상단인 \$580M에 근접하였다. Cenobamate가 아시아 지역으로 시장 확대 중으로 소액이지만 마일스톤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출액도 성장할 전망이다. 우선 하반기엔 브라질 NDA 승인 및 Xcopri 런칭에 따른 매출, 일본 허가 획득(Ono pharma가 '25년9월 NDA 제출)에 따른 마일스톤을 기대할 수 있다.

3분기에는 R&D 성과 발표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번 분기에 R&D 비용의 급증은 없었으나, 연간 5,700억원을 소진할 계획은 유지한다. 단기 주요 R&D 일정은 1) 2026년 3월 현탁액 제형 NDA 제출을 완료하여 빠르면 2027년 초 승인 기대, 2) 전신발작 적응증 및 소아 연령 확대를 위한 sNDA는 연내 제출 목표, 3) 일본 cenobamate는 연내 승인 등이 있다. 아울러 신약 파이프라인인 NTSR1 표적 RPT(방사성의 약품)인 SKL35501(FDA 임상1상 IND 승인 획득), '27년 IND 제출을 목표로 개발 중인 p300 표적 TPD(표적단백질분해제)인 SKT-18416; CA9 표적 SKL37321(RPT, 항암제); 및 [225Ac]ROR1-RPT 등에 대한 개발 성과는 11월 3분기 실적발표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2nd 프로젝트 도입에 관해서는 “연내 성과 확보를 목표로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현저한 저평가, Azetukalner와 Cenobamate는 갈 길이 다르다

동사의 Fwd.12M 기준 OPM 38.9%, EV/EBITDA 13.3배인데, 동사의 역사적으로나 OPM 34.4%인 Peer EV/EBITDA 20.3배와 비교하면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 저평가가 엑스코프리 단독 매출로 인한 불안함 때문이라 판단하여, 기존 타겟 배수인 17배를 그대로 유지하여 목표 주가를 산정하였다. 한편 Xenon의 Azetukalner 출시에 대한 우려는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Azetukalner는 Cenobamate 대비 효능적 이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뇌전 증은 내성으로 인해 교체 투약하거나 병용 필요성이 높다. Cenobamate는 다양한 선행 약물들과의 병용 이점을 입증하며, Peer 대비 높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왔다. 흔히 병용되는 약물 Top3 중 SV2A계 약물이 있어서, Briviact의 제네릭 출시로 Cenobamate와의 병용 needs가 높아지는 현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Azetukalner는 동일한 MoA로도 Real-world data가 부족하여 우선 3제 이상의 다제 내성 환자에 대한 대체제로 소비되고 이후 병용 투여에서 안전성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

2026년 8월 11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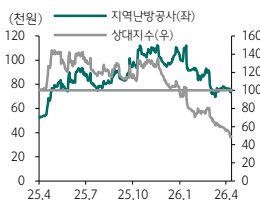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40,000원
현재주가(8.10) 72,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299.66
52주 최고/최저(원)	112,400/61,800
시가총액(십억원)	833.7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1,578.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
외국인지분율(%)	2.69
주요주주 지분율(%)	
산업통상자원부 외 2 인	64.63
서울특별시	10.3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796.2	3,866.3
영업이익(십억원)	400.4	393.4
순이익(십억원)	232.6	239.2
EPS(원)	20,089	20,395
BPS(원)	202,064	217,33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570.3	3,998.2	3,863.3	3,846.7
영업이익	327.9	529.6	524.4	502.8
세전이익	260.7	439.0	422.3	400.2
순이익	210.2	338.9	317.9	312.2
EPS	18,151	29,268	27,453	26,961
증감율	5.39	61.25	(6.20)	(1.79)
PER	2.28	3.29	2.62	2.67
PBR	0.21	0.49	0.33	0.30
EV/EBITDA	7.24	6.02	5.01	4.97
ROE	9.65	14.84	13.11	11.71
BPS	195,798	198,762	220,151	240,252
DPS	3,879	6,157	6,860	6,74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hyun@hanafn.com

지역난방공사 (071320)

만약 연간 감익이 아니라면

목표주가 14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지역난방공사 목표주가 140,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미수금은 전분기대비 477억원 증가했다. 3월부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미수금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7월 연료비 정산 및 고정비 조정 결과 요금 동결로 결정되었다. 정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른 결과다. 한편 하반기 감익 가이던스의 근간이 열요금 인하에 따른 실적 둔화였는데 잔여 미수금 회수되기 전까지 요금 유지 가능성이 높아 감익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요금제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오히려 전기 부문 중심의 증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 배당성향이 전년대비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면 높은 한 자리 수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된다. 2026년 기준 PER 2.6배, PBR 0.3배다.

2Q26 영업이익 332억원(흑자전환)으로 컨센서스 상회

2분기 매출액은 6,531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판매실적은 열이 9.8% 감소, 전기는 13.4% 증가했다. 열은 비수기 판매량 감소로 외형이 둔화되었다. 전기는 주요 발전기 정비가 집중된 전년동기의 기저효과로 가동률이 회복되며 성장했다. 판매단가는 열 0.4% 하락, 전기는 2.9% 상승했다. 열요금은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전기는 SMP 약세에도 기저발전 공급능력 감소 영향으로 판가가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흑자 전환했다. 전기 부문 실적 개선이 주요 원인이다. 열은 4월 고정비 조정으로 일부 영업이익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기는 판매량 증가와 전력마진 개선으로 이익이 증가했다.

하반기 열 요금 동결로 인한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 가능성

열요금은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이 지속적으로 동결 기초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요금 안정화 정책으로 당분간 유사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지만 기존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열요금이 동결되면서 전년대비 특별히 악화될 여지는 없을 전망이다. 전기는 3분기 SMP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요금제의 낮은 도입원가를 기반으로 스프레드 개선이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화성 및 수원 설비 개체공사 이후 용량 확대와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미수금 완전 회수 전까지 열요금 인하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고배당 기초가 유지될 수 있다.

2026년 8월 11일 | 기업분석_ 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68,000원
현재주가(8.10) 46,1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299.66
52주 최고/최저(원)	67,500/42,250
시가총액(십억원)	2,074.5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45,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7.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2
외국인지분율(%)	9.14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전력공사 외 1인	51.02
국민연금공단	9.4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642.1	1,713.5
영업이익(십억원)	190.0	200.3
순이익(십억원)	157.6	168.4
EPS(원)	3,500	3,742
BPS(원)	31,602	33,297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557.1	1,576.5	1,621.2	1,739.1
영업이익	209.5	140.1	189.6	201.1
세전이익	225.2	156.0	206.2	217.5
순이익	172.4	124.2	156.5	163.1
EPS	3,832	2,761	3,477	3,624
증감율	6.00	(27.95)	25.93	4.23
PER	11.51	17.91	13.26	12.72
PBR	1.49	1.65	1.44	1.38
EV/EBITDA	5.68	8.97	5.91	5.47
ROE	13.26	9.29	11.25	11.11
BPS	29,520	29,906	31,926	33,291
DPS	2,469	1,651	2,260	2,36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hyun@hanafn.com

한전KPS (051600)**선행 지표가 없는 실적****목표주가 68,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전KPS 목표주가 68,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했다. 일시적인 매출 둔화에 따른 이익 감소 때문이며 이익을 변화는 크지 않았다. 계획예방정비 준공 및 수행호기 실적이 매출의 선행지표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분기 실적보다는 연간 단위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 2026년 기준 PER 13.3배, PBR 1.4배다.

2Q26 영업이익 370억원(YoY -33.6%)으로 컨센서스 하회

2분기 매출액은 4,379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화력 부문의 외형 성장에도 대외 실적 둔화로 외형이 감소했다. 화력은 2,011억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했다. 준공호기 수가 2025년 2분기 54개 호기에서 이번 2분기에 37개 호기로 감소했지만 매출에 반영된 계획예방정비공사 실적은 증가했다. 원자력/양수는 1,466억원으로 2.3% 감소했다. 준공호기 수는 5기로 전년동기 1기 대비 크게 늘었지만 계획예방정비공사 실적은 감소했다. 수주 금액 변화 없이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단위 매출이 둔화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송변전은 개보수 공사 실적 증가로 2.1% 성장한 289억원을 기록했다. 해위는 316억원으로 13.2% 감소했으며 해외 화력 변동공사 실적의 감소 영향이다. 대외도 변동공사 실적 감소 영향에 44.7% 감소한 29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70억원으로 전년대비 33.6% 감소했다. 재료비는 301억원으로 전년대비 22.2% 감소했다. 수명연장공사 자재비가 감소했다. 노무비는 1,466억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정비 매출 감소와 비슷한 추세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경영평가 등급이 직전 3년 평균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경비는 2,176억원으로 9.2% 증가했다. 계획예방정비공사 단기노무원 확대에 따른 급여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영업이익률은 10.0%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4.4%p 하락했다. 원가 비중이 높은 대외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경비 증가로 마진이 둔화되었다.

올해 연간 비용 절감 및 EPS 상향 가능성은 낮아짐

2025년 경영평가 등급 결과가 지난 6월에 발표되었고 최근 3년 평균과 같은 B 등급을 기록했다. 세부적인 지급률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유의미한 노무비 변동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현재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DPS 상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국내의 계획예방정비 수주 가능 원전의 확대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나 원전 개보수 매출이 집중되는 시점까지는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2026년 08월 11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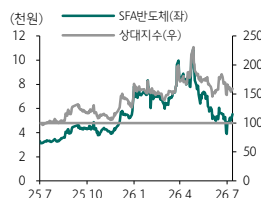
5,54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54.47
52주 최고/최저(원)	11,640/3,195
시가총액(십억원)	911.1
시가총액비중(%)	0.19
발행주식수(천주)	164,460.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844.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9.3
외국인지분율(%)	5.89
주요주주 지분율(%)	
에스에프에이 외 3인	55.00
삼성자산운용	5.0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29	800
영업이익(십억원)	1	87
순이익(십억원)	3	61
EPS(원)	18	371
BPS(원)	2,903	3,27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699	417	400	367
영업이익	63	(13)	(0)	(20)
세전이익	71	(12)	3	(19)
순이익	43	(13)	21	(19)
EPS	261	(79)	130	(116)
증감율	(18.7)	적전	흑전	적전
PER	14.7	(76.3)	23.7	(39.4)
PBR	1.4	2.2	1.0	1.6
EV/EBITDA	5.9	31.9	10.3	37.7
ROE	9.4	(2.9)	4.3	(4.0)
BPS	2,783	2,742	3,033	2,888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wkon@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SFA반도체 (036540)**DDR5 테스트 전량 확보, 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조립·테스트·모듈을 일괄 수행하는 후공정 업체**

SFA반도체는 1998년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조립·파이널 테스트·모듈을 일괄 수행하는 국내 후공정 업체다. 국내 1공장은 컨벤셔널 패키지 조립을, 2공장은 범퍼·웨이퍼 테스트·다이 프로세서 서비스로 구성된 웨이퍼레벨 패키지를 담당하며, 필리핀 클락 법인은 메모리 모듈과 파이널 테스트를 수행한다.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은 지난해 72%에서 1분기 75%로 상승했다. 최대주주는 에스에프에이 외 3인(55.0%)이다. 2025년 연결 매출은 3,674억원(-8.3% YoY), 영업손실은 196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필리핀 법인의 테스트 부문, DDR4 공백을 되찾는 국면

삼성전자가 범용 메모리 파이널 테스트를 처음 외주화한 곳은 DDR4 시절 동사 필리핀 법인이다. 이후 다운사이클과 고객사의 내재화로 필리핀 매출은 2022년 4,510억원에서 2025년 2,270억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온양 라인의 HBM 전용 전환으로 범용 메모리 테스트 물량이 다시 외주로 이관되고 있다. 국내는 전력 부담으로 신규 증설이 제한적인 반면, 동사는 기존 DDR4 설비를 DDR5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DDR5 외주 물량 중 조립은 동사가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모듈은 HY사 비중이 높지만, 테스트는 동사가 전량 맡는다. 캐파는 연말 월 100억원, 2027년 2분기 월 200억원으로 증가된다. 테스트 매출은 2025년 356억원에서 2027년 1,69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증축 중인 SSP3 7,000평의 1층도 테스트로 협의돼 향후 월 300억원까지 확대 여지가 충분하다.

국내 1·2공장, 가동을 회복이 만드는 이익 레버리지

1공장 매출은 2022년 1,541억원에서 2025년 589억원까지 축소됐고, 가동률은 손익분기 65%에 못 미치는 40%에 불과하다. DDR5 조립 물량은 4분기부터 유입되며, 2027년 1,850억원으로 2022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2공장은 8·12인치 모두 풀가동 상태로, 캐파는 월 85억원에서 2027년 하반기 120억원으로 확충된다. 1·2공장 고정비 부담이 컸던 만큼 손익 개선 폭은 매출 증가폭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2년간 개발해온 비메모리 플립칩도 연말부터 월 15억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된다. CAPEX는 평년 300억원 수준에서 2027년 누적 2,500억원이 집행되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16%에 그쳐 부담은 제한적이다.

2분기 저점, 2027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834억원 전망

2026년 1분기 매출은 1,073억원(+42.6% YoY), 영업손실은 62억원(적자지속)을 기록했다. 2분기는 설비 이관 비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며 적자 저점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손익분기점을 회복한 뒤 4분기 테스트 가동이 본격화되며 한 자릿수 후반의 OPM에 진입할 전망이다. 2026년 매출 5,502억원(+49.8% YoY)·영업적자 31억원(적자지속), 2027년 매출 7,580억원(+37.8% YoY)·영업이익 834억원(흑자전환)이 예상된다. 매출은 종전 최대인 2022년 6,994억원을, 영업이익은 2021년 665억원을 넘어선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상각 부담을 흡수하며 달성하는 수치다. 수익성은 테스트 비중에 좌우된다. 변곡점을 지나는 구간인 만큼 실적 눈높이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8월 11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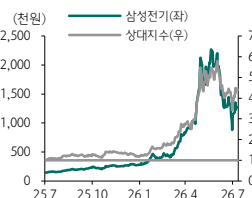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3,000,000원
현재주가(8.10) 1,274,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299.66
52주 최고/최저(원)	2,270,000/154,700
시가총액(십억원)	95,159.8
시가총액비중(%)	1.83
발행주식수(천주)	74,693.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09.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966.7
외국인지분율(%)	38.59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4인	23.77
국민연금공단	9.9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314.4	18,375.6
영업이익(십억원)	1,926.4	3,701.4
순이익(십억원)	1,594.1	3,016.0
EPS(원)	19,742	37,475
BPS(원)	146,105	184,98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294.1	11,314.5	14,574.3	17,778.7
영업이익	735.0	913.3	2,031.1	4,332.5
세전이익	797.3	895.8	2,128.0	4,379.7
순이익	679.1	706.1	1,610.4	3,382.0
EPS	8,752	9,099	20,752	43,583
증감율	60.59	3.96	128.07	110.02
PER	14.15	28.03	61.39	29.23
PBR	1.08	2.04	8.73	6.81
EV/EBITDA	5.87	10.44	22.62	12.55
ROE	8.16	7.70	15.55	26.47
BPS	115,152	124,850	145,905	187,198
DPS	1,800	2,350	2,350	2,350



Analyst 김민정 minkyung.kim@hanafn.com

삼성전기 (009150)**[NDR 후기] 수급 불안을 먹고 자라는 중****목표주가 300만원 유지**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300만원을 유지한다. 금번 NDR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MLCC 관련 LTA 체결 동향, 가격 추이 및 Capa 운영 계획과 FCBGA 관련 가격 인상 추이, 증설 및 선수금 수령 계획 등에 집중되었다. AI 서버 중심으로 MLCC와 FCBGA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Capa Loss 증가로 인해 공급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이클 대비 가격 흡수력이 높은 AI 데이터센터 고객사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익성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MLCC: 상단이 막힌 공급, 상단이 뚫린 수익성

[1]LTA 관련 삼성전기는 10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10개 이상의 고객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전체 MLCC 매출 내 장기공급계약 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며 가격 상승에 대한 상방은 열어둔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제품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ASP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고객사의 수급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가격정책의 경우 6월과 8월에 각각 유통채널별 물량에 대해 각각 10%, 30%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MLCC 수급 상황이 더욱 타이트해지며 유통채널 외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 협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높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기는 필리핀 신규 생산시설의 가동 시기를 27년 하반기에서 27년 상반기로 앞당겼다. 다만, 인력 등의 이슈로 단기간 내 대규모 증설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연간 20%내외의 생산능력 확대가 예상된다. 하반기 IT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Murata와 Taiyo yuden의 2분기 BB ratio는 각각 1.47, 1.7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7년까지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FCBGA: 예약제로만 운영합니다

26년 하반기부터 FCBGA는 완전 가동상태에 돌입할 예정이며 제한된 Capa에도 불구하고 믹스 개선 및 가격 인상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상반기 스위치 제품 양산을 시작하는데 이어 하반기에도 가속기 및 서버 CPU용 FCBGA 공급 확대에 따라 26년 하반기 서버/네트워크 매출 비중은 60%를 상회할 전망이다. 삼성전기는 기판 스펙 업그레이드와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외 사이트에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여타 대형 기판 업체와 같이 고객사 선수금 수령을 통해 증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생산시설의 가동 시점은 28년 상반기이며 27년에는 보완투자를 통해 소폭의 생산능력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6년 08월 11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8월 10일

솔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10,34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54,40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32,50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70,000원 | CP 17,90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60,000원 | CP 17,23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7,85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75,000원 | CP 40,85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27,80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0,53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6,250원

세나테크놀로지(061090)

BUY | TP 80,000원 | CP 47,550원

통신 장비

스페이스X는 디시네트워크와는 급이 다릅니다

스페이스X의 지상파 시장 진출 가능성 고조, 결국 새로운 이통사로 부상 전망

최근 통신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코스타가 보유하던 주파수 45MHz를 170억달러(23조원)에 인수한데 이어 추가 주파수 취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7월 미국 현지 매체들이 스페이스X의 어퍼 C밴드 주파수 획득 가능성을 높게 보도하였다. 도심에서 잘 작동하는 스펙트럼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통신사를 인수하거나 신규 주파수 경매에 스페이스X가 참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일부에선 망임대비용 절감을 위한 스페이스X의 주파수 취득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데 위성 매출액과 지상망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은 얘기다. 물론 최근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광-위성간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광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선 여전히 지상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피지컬 AI 산업에서 중요시되는 초저지연, 저전력 기술 시현을 위해서는 5G/6G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지상망 투자에 나선 것이란 판단이다. 결국 기존 위성에 지상망을 포함한 다방면의 네트워크 구축에 스페이스X가 나선다고 볼 수 있겠다. 아마도 6G부터는 스페이스X도 기간 통신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이스X가 매출처로 등장한다면 국내 무선통신장비 업체에는 큰 호재

그런데 스페이스X가 당초 예상대로 지상파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국내 통신장비 업체에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통신사간 네트워크 경쟁 강도가 높아지면서 장비 투자 열기가 높아질 수 있으며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매출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2020년 디시네트워크가 제 4 이동통신사업자로 출범한 사례를 상기하는데 사실상 체급이 달라 스페이스X와의 단순 비교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 디시네트워크의 등장도 국내 통신장비 업체에게 호재로 인식된 바 있는데 스페이스X의 경우엔 글로벌 기업이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지대할 것이란 판단이다. 사실상 체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 상황을 감안하면 스페이스X의 어퍼 C밴드 경매 참여는 국내 무선통신장비 업체에 특급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중국 규제 감안 시 국내 아웃소싱 무선통신장비 업체 큰 수혜 예상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중국 부품을 제외할 시 글로벌 SI들이 조달할 마땅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유선의 경우엔 미국에도 준비한 업체가 다수 존재하지만 무선의 경우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아웃소싱 통신장비 업체들의 삼성전자/에릭슨을 통한 스페이스X 진입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국내 아웃소싱 무선 통신장비업체들의 경우 중국 아웃소싱 장비업체 대비 M/S도 높고 기술력 우위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 전망을 하게 한다. KMW/RFHIC/솔리드/LIG아큐버/오이솔루션에 대한 우선적 매수를 추천한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2026년 8월 11일 | 산업분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8월 10일

대한항공(003490)

BUY | TP 41,000원 | CP 26,850원

진에어(272450)

BUY | TP 7,000원 | CP 5,470원

운송

7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2Q가 저점, 턴어라운드 기대

7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 652만명(+5% (YoY))

2026년 7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652만명을 기록했다.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 위주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중국/동남아 노선 여객 수송량은 +21%/+23%/-15% (YoY) 변동했고, 미주/유럽 노선은 7%/5%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9%/-2% (YoY) 변동했고, 제주항공/진에어/트리니티항공은 +5%/+0%/-1% 변동했다. 7월 환승객은 29% (YoY) 증가한 82만명(환승 여객 비중 12.6%)을 기록했는데, 중-일 간 직항 공급 감소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7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 26.9만톤(+5% (YoY))

7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은 5% (YoY) 증가한 26.9만톤을 기록했다. 주요 루트인 중국/동남아/미주/유럽 지역 수송량이 9%/4%/7%/2% (YoY) 증가했다. 국내 IT/화장품 수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환적화물량도 견조하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3% (YoY) 증가했고, 아시아나항공은 74% 감소했다.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와 내국인 아웃바운드 감소

6월 내국인 아웃바운드는 전년 동월 대비 10% (YoY)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높은 환율과 항공권 가격 상승 등이 여행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본/중국/미국 출국자 수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외 지역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한편 원화 절하가 외국인 인바운드를 유입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6월 입국자 수는 23% (YoY) 증가했고, 상반기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율은 21%에 달한다. 인바운드 및 환승 수요를 흡수 가능한 FSC는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나, LCC에게는 불리한 영업환경이다. 2분기 제주항공/진에어는 각각 -524억원/-73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8월부터는 유류할증료가 전쟁 발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여행 수요를 진작할 예정이고, 항공유가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15% 가량 낮아진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항공사의 실적은 2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전망한다. 8월 실적에서는 유류할증료 인하로 인한 항공수요 진작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보수적으로 대한항공 위주의 접근을 권한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확인되고 있는 AIDC와 부동산 정책

건설 Weekly | 2026.8.11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22.5%p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 외인이 매도했다. 기관은 GS건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건설주를 매수, 삼성물산은 매도했다. 외인은 대부분의 건설주를 매수, 대우건설을 매도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하락한 가운데, 건설주는 크게 상승한 한 주였다.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인 GS건설이 크게 상승했으며, 호실적 및 주주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한 대우건설 또한 크게 상승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9.6으로 5주 만에 반등했다(+0.4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49주 연속 상승(+0.09%), 전세가는 60주 연속 상승했다(+0.11%). 수도권 매매가는 75주 연속 상승(+0.17%), 전세가는 76주 연속 상승했다(+0.19%). 서울 매매가는 80주 연속 상승(+0.26%), 전세가는 77주 연속 상승(+0.25%)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매매가는 모두 상승했다(각각 +0.01%, +0.02%).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53주 연속, 기타지방 49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6%,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7%), 전남광주(+0.07%), 인천(+0.02%) 상승, 대전 보합, 부산(-0.02%), 대구(-0.01%)가 하락했다.
- 지난 주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중심으로 개편이 있었다. 종부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1)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70~80%), 2)기분 공제금액 변경(1주택거주 14억원, 1주택비거주 9억원, 그외 4억원+(5억원x거주주택가액비율)), 3)세율 일원화, 4)세부담상한 조정(150%→200%) 등이 있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1)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점진적 변경, 2)공제 한도 신설(28년 20억원, 29년부터 10억원) 등이 있었다. 그리고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및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1주택 실거주 목적의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배경에는 1)다주택자와 조정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 장기보유 아파트의 매물 출회, 2)1세대1주택 거주용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B2C 인테리어의 시장은 기존 전망보다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빠르면 이번 주 13일 전후로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급 대책의 내용에 따라 주택주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 GS그룹의 동해 AI데이터센터는 현재진행형이다. GS그룹은 8/3 동해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축허가 신청에는 1.2GW 규모 1단계 사업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를 거쳐 9월~10월 중 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 북평제2산단 내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상 업종 코드를 '정보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강원도와 동해시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건축 허가 전 변경완료 될 예정이다. GS측은 12일 동해시를 방문하여, 인허가 절차 등 본격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7년말 100MW 규모의 SITE3을 준공, 2028년말까지 나머지 2개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준공하는 계획으로 알려져있다. 시공은 GS건설과 자이C&A가 수행 가능하며, 이에 따른 실적 기여가 클 전망이다.
- 하반기 여전히 가장 유효한 상승 재료는 데이터센터다. 특히 GS그룹의 동해 AI데이터센터 관련 뉴스(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련 종목으로 GS건설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재건(해외EPC), 원전 등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 공급대책의 내용에 따라 주택주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8월 10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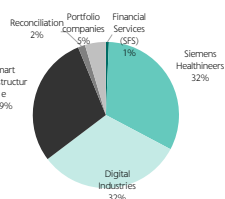
독일

TP(컨센서스) 304.77 EUR
CP(8.7) 280.20 EUR

Key Data

국가	독일
상장거래소	Xetra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복합 기업
홈페이지	new.siemens.com
시가총액(십억EUR)	219.1
시가총액(조원)	196.5
52주최고/최저(EUR)	291.1/196.5
주요주주 지분율(%)	
블랙록	6.99
CAPITAL GROUP	5.2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5 9.1 20.4
상대	(2.3) 3.9 11.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EUR)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78,914	78,914	83,006	88,808
영업이익	9,595	9,595	12,333	14,177
순이익	9,620	9,620	8,340	9,578
EPS(EUR)	13.0	10.1	11.2	12.9
EPS(YOY, %)	0.0	(22.2)	11.1	14.9
ROE(%)	16.8	17.0	13.5	14.6
PER(배)	17.4	23.8	25.0	21.8
PBR(배)	2.8	2.9	3.3	3.0
배당률(%)	2.9	2.3	2.0	2.1

자료: 지멘스, LSEG 시장 예상치,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지멘스 (SIE.GR)

5년간 AC/DC의 하이브리드 배전 인프라 전망

3QFY26: 역대 최고 주주 달성

3QFY26('26년 6월 결산) 매출액 208억 유로(YoY +7%), 조정 EPS 2.93유로(+12%)로 컨센(206억, 2.59)을 모두 상회했다. 주주는 279억 유로(YoY +13%)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의 확충에 따라 데이터센터 부문 주주가 3분기 누적 60억 유로로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스마트인프라(SI) 주주가 최초로 80억 유로(+40%)를 넘어선 데에서 기인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며 미주 지역에서 11% 성장했다. 인도에서도 13% 성장을 반영해 아시아와 호주 지역에서도 10% 성장했다. 미국에서의 관세 환급 효과와 지멘스 헬시니어스 부문의 효과가 수익성을 뒷받침하며 지멘스 산업 부문 이익은 사상 최대인 35억 유로를 달성했다.

스마트인프라 미국 주주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영향으로 YoY +81%

디지털인더스트리(DI) 매출 49억 유로(+7%)로 컨센에 부합했다. AI 인프라 확충 수혜 업종 이외에도 제조업 전반에 걸쳐 개선세를 확인했다. 중국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유럽의 가동률은 여전히 낮다. DI는 FY26년 매출성장률은 +7~10%, 이익률은 17~19%를 전망하며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4분기는 DI 주주는 예외적으로 EDA 주주가 많았던 FY25년의 역기저 효과로 YoY flat 수준을 전망했다. 스마트인프라(SI) 매출은 64억 유로(+12%)로 컨센(61억)을 상회했다. 전기제품 주주 +58%, 전력화 사업 +55% 성장하며 주주는 사상 최고치인 80억 유로를 기록했다. 구조적으로 매출 증가와 가동률 개선에 따른 규모의 경제, 지속적 생산성 향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 아직 원자재 비용 증가를 가격 정책에서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하반기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주주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영향으로 +81% 급증했다. 주주잔고에 기반한 높은 가시성으로 FY26년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10~11%로 중간값 기준 150bp 상향 조정했다.

800V DC 프로젝트는 2027년 예상, 앞으로 5년간은 AC/DC 공존

지멘스는 HD현대와의 협력을 통해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조선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MASGA의 조울 기구인 미국-한국 조선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800V DC 로드맵은 일괄적인 전면 교체가 아닌 향후 4~5년에 걸친 단계적인 전환 과정이며 초기에는 AC와 DC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브라운필드와 신규 설치하는 그린필드 프로젝트 모두에 해당한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2027년을 예상했다. Infineon의 SiC 전력 모듈을 SST에 통합하고 있다. 12M FWD PER 25.0배로 글로벌 복합기업 평균(29.3배) 대비 낮으며 경쟁사 대비 산업자동화(DI) 비중이 높아 업황 개선시 주가 탄력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10	231,000	230,000	-0.4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10	1,278,000	1,274,000	-0.31%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52,000	5.01%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에이피알 (278470.KS)	8/10	384,500	387,000	0.65%	- 북미·유럽 고성장과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기반으로 2026년 매출 가이던스 상향 - 미국/유럽 재고가 안정화되면서 항공운송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
S-Oil (010950.KS)	8/10	137,600	139,600	1.45%	- 정제마진 강세와 윤활기유 스프레드 급등으로 3Q26 영업이익 1.08조원 예상 - 하반기 모멘텀 1) 윤활기유 추가 이익 확대 2) OSP 마이너스 재확인 3) 유가 안정
C제일제당 (097950.KS)	8/10	204,500	205,500	0.49%	- 바이오 부문의 판가 회복과 원가 부담 완화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 - 미주 중심의 글로벌 식품 성장과 비주력 사업 재편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
GS건설 (006360.KS)	8/10	31,650	34,900	10.27%	- 건축·주택 원가를 정상화와 비용 선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수주 가능성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높일 핵심 모멘텀
세아베스틸지주 (001430.KS)	8/10	41,600	43,050	3.49%	- 오일&가스·방산·반도체 등 전방 수요 회복과 공격적 영업전략으로 특수강 판매 증가 - 미국내 특수합금 공장과 사우디 무게목강관 공장의 사업 본격화로 외형성장 기대
RFHIC (218410.KQ)	8/10	48,450	54,400	12.28%	-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와 5G 투자 재개에 따른 GaN TR 수요 확대 예상 - AI-RAN 투자 확대와 자회사 RF머트리얼즈의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호실적 기대
에이유브랜즈 (481070.KQ)	8/10	18,150	18,920	4.24%	- 중국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으로 글로벌 외형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 - 사계절 제품군 확대와 직영·온라인 중심의 고마진 구조로 수익성 개선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71%	+3.06%p	+70.76%	+18.0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52,000	5.01%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주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주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481,500	4.90%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830	-3.48%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30,000	-12.38%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274,000	11.56%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아모레퍼시픽 (090430.KS)	8/3	130,000	135,800	4.46%	• 북미·유럽과 코스알렉스의 고성장으로 글로벌 실적 개선세 본격화 • 지역·채널 다각화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멀티브랜드 기업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종산 (103140.KS)	8/3	71,200	86,600	21.63%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24,500	2.55%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1,700	-6.89%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88,000	15.10%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08%	+5.93%p	+38.14%	-14.5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840	-2.3%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2,330	-18.7%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4,705	17.4%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92,245	-13.7%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00	-7.8%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سه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21,635	1.6%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900	-2.9%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0,940	-9.7%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89.11	6.4%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인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7.61	-0.8%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97.85	6.5%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5.97	13.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82.70	71.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50.60	-37.3%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86.43	4.9%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57.37	3.5%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증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썬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9	8.10	8.11	8.12	8.13	8.14	8.15
- 중국 7월 PPI (3.5%, 이전치 4.1%) - 중국 7월 CPI (0.5%, 이전치 1.0%)	유로존 8월 섀넥스 투자 자기대지수 (E -0.5, 이전치 -3.1)	- 미국 7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E 97.4, 이전치 97.4) - 미국 7월 기존주택매매 (E -1%, 이전치 -2.4%)	- 한국 7월 실업률 (E 2.7%, 이전치 2.7%) - 일본 7월 공작기계수주 (E --, 이전치 52.7%) - 미국 7월 CPI (E 3.4%, 이전치 3.5%) - 미국 7월 근원 CPI (E 2.5%, 이전치 2.6%)	- 일본 7월 PPI (E 7.4%, 이전치 7.1%) - 미국 7월 PPI (E 4.8%, 이전치 5.5%)	- 한국 7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8.9%) - 한국 7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20.6%) - 유로존 2분기 GDP (E 0.4%, 이전치 0.4%) - 미국 7월 소매판매 (E 0.2%, 이전치 0.2%)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E 54.1, 이전치 54.4)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일본 2분기 GDP (E 2.2%, 이전치 1.8%) - 중국 7월 소매판매 (E 1.5%, 이전치 1.0%) - 중국 7월 광공업생산 (E 5.0%, 이전치 5.3%) - 중국 7월 고정자산 (E -6.2%, 이전치 -5.7%)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4.2%) - 미국 8월 NAHB 지수 (E --, 이전치 34)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 이전치 26.3) - 미국 7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9.0%) - 미국 7월 건축허가 (E --, 이전치 -2.6%) - 미국 7월 설비가동률 (E --, 이전치 76.1%) - 미국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0.1%)	- 일본 6월 핵심기계수주 (E --, 이전치 -12.4%) - 유로존 7월 CPI (E --, 이전치 2.9%)	미국 8월 금리 결정 (E --, 이전치 19.0%)	- 한국 7월 PPI (E --, 이전치 8.6%) - 일본 7월 CPI (E --, 이전치 1.7%) - 일본 8월 제조업PMI (E --, 이전치 54.5) - 일본 8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51.2) -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1.6%)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90.8)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